

이 내용은 일본 「노동위생」지에  
게재된 노동위생활동에 관한  
Q&A를 번역한 것입니다.  
산업보건관계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서로 다른 회사로 독립된 2개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



● 최근 경영합리화로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A사와 B사가 같은 건물내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각각 상시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 회사는 동일 회사였는데 제품이나 연구개발, 영업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회사로서 독립적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은 다르지만 설비기계나 작업내용도 비슷하며, 동일 건물내에서 인접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보건위원회는 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사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고, 각 위원간의 상호교류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를 함께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의 출석 확보라든가 기록의 보존 등을 각각 확실하게 실시만 한다면 한 체제로 운영하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사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느 쪽이든 한쪽 회사의 직원을 라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양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도 좋은지요?

### ☛ 관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A사와 B사의 업무내용이 유사할지도 모르겠으나 반드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등은 독자적 기계설비

라인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A사, B사가 각각 선임해야 하며, 각자 자회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본래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방지의 추진에 영향을 주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A사와 B사의 분리는 지휘명령계통의 분리 등 경영상에 필요성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예산도 회사별 회계로 되어 있고, 이 회계를 구분한다는 일이 회사를 분할할 목적의 하나라는 점에서 한 체제로서의 지휘 명령이나 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위원회가 일상적 업무의 협의나 사무연락에만 그치는 경우는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좋다고 하겠지만, 구체적인 개선 등을 심의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는 회사의 위원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발언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가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

여 의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A사, B사가 각각 선임해야 하며, 각자 자회사의 안전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본래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방지의 추진에 영향을 주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사업자와 라인상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각 기업 등에서도 합리화, 간소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잘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방향으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나 활동을 간략화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답**